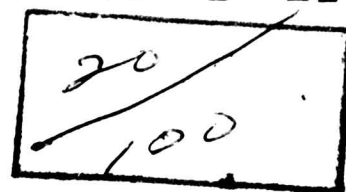


73-1-21



國際市場에서의 北韓과의 競爭 및

보 관 응

(관 리 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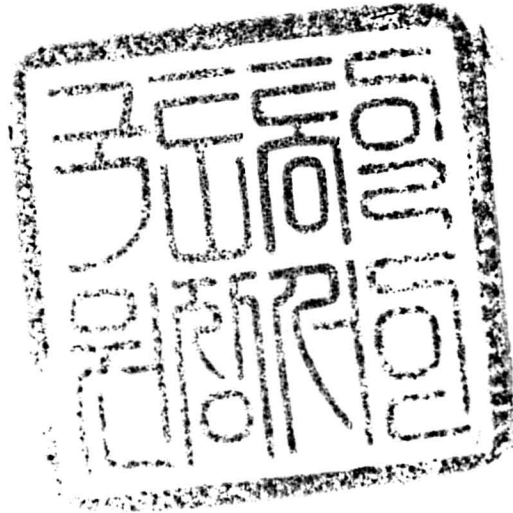
協 助 方 案

1973. 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9.



西江大學校 經濟經營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李

承

潤

目 次

第 1 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3
가.	研究 目的	3
나.	研究 範圍	5
第 2 章	北韓의 貿易政策 및 地域別 貿易現況	7
가.	北韓의 貿易政策	7
나.	北韓의 對共產圈 貿易現況	14
다.	北韓의 對自由圈 貿易現況	21
第 3 章	國際市場에 서의 競爭 및 協力の 可能性	29
가.	東·西貿易의 擴大와 非敵性國交易의 可能性	29
나.	自由圈內에서 北韓과의 輸出競爭比較	36
다.	日本에 서의 輸出競爭比較	41
라.	共產圈(蘇聯, 東歐)의 對韓國 輸出市場 潛在性	45
第 4 章	協力の 問題點 및 長期對策	53
가.	南·北韓協力에 따른 損益評價	53
나.	南·北協力の 範圍	56
다.	協力方案 및 長期對策	58

第 1 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가. 研究 目的

本研究報告書는 国土統一院의 위촉에 依하여 「國際市場에서 의 南·北韓經濟 競争 및 協力方案」을 模索하기 爲하여 着手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將次에 있어 非政治的인 分野에 서의 南·北交流를 前提로 함은 勿論이다.

주지하는 바 60年代에 있어서 東·西冷戰体制의 붕괴와 더불어 國際間的 勢力 多元化 現象은 지난 1970年 朴大統領의 8.15 宣言과 이듬해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離散家族 찾기 運動」은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을 試圖한 劃期的 事件이 었다.

이것은 다시 南·北統一의 原則과 先行條件을 천명한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으로 연결 되었고, 마침내 금년에는 6.23 特別 宣言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政府의 새로운 平和統一政策을 提示한 6.23 聲明은 오늘날의 國際關係의 現況에 對한 솔직한 檢討와 現實主義的인 接近方法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이제껏 우리는 大韓民國 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立場에서 北韓의 國聯加入을 반대 해 왔고, 여타의 國際機構에 北韓의 加入을 저지하여 왔으며 國聯總會에서 韓國問題가 토의될때

마다 南,北韓代表의 同時招請案을 봉쇄해온 종래의 統一外交政策을
이제 6.23 聲明을 계기로 하여 철회하게 된 것이다.

금번의 聲明이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의 維持, 南,北韓의 內政
의 不干涉과 緊張의 완화를 平和統一努力의 一次的 課題로써 새삼
強調한 事實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以來 北韓 当事者들이 계속
大韓民國의 法体制의 變혁을 주장함과 아울러 빈번한 挑發行爲를
자행하여 政治를 難局으로 몰아 넣고 있는 무례한 사태에 對한
關心의 表示로 보인다.

특히 6.23 聲明은 共產主義 몇몇 國家들을 除外하고는 世界大
多數 國家들의 好意的 反應을 일으키고 있음은 勿論, 韓國의 統
一外交政策의 새로운 次元을 형성하기 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지난번의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은 非
政治的 分野에 걸쳐 多方面의 南,北交涉案을 提案한 바 있다.

특히 이가운데서 南,北間의 經濟人交流과 商社의 相互常駐問題는
特記할 만한 것이며 더욱이 南,北韓이 同時에 國聯이라든가 여
타의 國際機構에 加入을 前提로 한다면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國際
市場에 서의 北韓과 어떠한 對決을 해야 하며 또한 制限된 分野
에서 어떠한 協力이 이루어 질수 있느냐 하는 可能性의 檢討를
分析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國際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協力問題는 우선 韓國側으로 본다면
蘇聯을 爲始한 東歐諸國 및 中共에 對한 交易의 擴大를 달하는
것이며 北韓側으로 본다면 지난 60年代 後半期부터 急激히 擴大
되고 있는 西歐諸國 및 여타의 亞細亞 自由主義諸國에 對한 交易

의 擴大를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的인 側面에 서의 劃期的인 政策轉換에 對備하여 經濟的인 側面에 서도 이에 對한 部門別 可能性의 檢討와 損益評價의 分析 및 對備策을 수립하는 데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나. 研究 範圍

最近 數年間に 있어 서의 東西和解를 基調로 하는 國際政治, 經濟情勢의 變化로 말미암아 始作된 南.北間의 對話는 政治 및 軍事的인 對立關係에서 經濟的 競爭으로 轉換할 可能性이 보인다.

또한 南.北間의 交易의 可能性을 시사함과 아울러 각기 갖이고 있는 對外經濟去來의 競爭性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같은 事實은 또다시 지금까지의 우리의 對北韓戰略을 經濟的인 側面에 서도 修正하여 야 할 必要性이 대두된다.

그럼으로 「國際市場에서의 南.北韓經濟競爭 및 協力方案」은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80年代에 100億 弗 輸出과 1,000 弗의 一人當 國民所得達成을 爲하여 非敵性 共產圈市場에 까지 침투하기 위한 北韓과의 協力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北韓側으로 본다면 歐美諸國을 爲始하여 西方自由主義 諸國에 對한 北韓의 輸出 및 經濟協力の 擴大를 爲한 協力を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範圍는 우선 第2章에서 北韓의 貿易政策 및 現況에 對한 分析을 試圖하였다. 왜냐하면 社會主義諸國의 貿易政

策은 自由主義諸國과 判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오늘날 一般的으로 蘇聯을 爲始한 「코메콘」經濟圈은 基本政策과 決裁方法에 있어 서도 相異한 양상을 따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近年의 北韓의 輸出入現況이 漸次 西方側으로 轉換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對蘇 및 東歐貿易과 對西方貿易을 比較하여 檢討를 試圖하게 된것이다.

第3章에 서는 國際市場에서 北韓과의 經濟協力 및 競争의 可能性을 검토하였고 特히 南.北韓의 貿易現況 및 輸出商品構造, 競争 및 協力の 範圍, 이에 따른 方法等を 서술하였다.

또한 東西貿易의 擴大傾向과 蘇聯 및 東歐諸國의 韓國에 對한 市場潛在性에 關한 分析을 하였는데 그理由는 오늘날 蘇聯 및 東歐諸國의 經濟構造로 보아 長期的인 側面에 서의 市場의 潛在性이 적다면 南.北韓의 協力이 우리에게는 別로 큰 利得이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第4章은 問題點 및 長期對策으로 써 南.北韓經濟協力에 綜合的인 損益評價와 더불어 北韓이 장차 西方市場에 交易을 擴大할 경우 南.北韓의 經濟構造로 보아 相互補完的이 라기 보다는 相互競争的인 性格이 크기 때문에 相互競争部門에 對한 長期的 對備策을 言及하는 것으로 研究의 範圍를 限定하였다.

策은 自由主義諸國과 判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오늘날 一般的으로 蘇聯을 爲始한 「코메콘」經濟圈은 基本政策과 決裁方法에 있어 서도 相異한 양상을 따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近年의 北韓의 輸出入現況이 漸次 西方側으로 轉換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對蘇 및 東歐貿易과 對西方貿易을 比較하여 檢討를 試圖하게 된 것이다.

第3章에 서는 國際市場에서 北韓과의 經濟協力 및 競爭의 可能性을 검토하였고 特히 南·北韓의 貿易現況 및 輸出商品構造·競爭 및 協力の 範圍, 이에 따른 方法等を 서술하였다.

또한 東西貿易의 擴大傾向과 蘇聯 및 東歐諸國의 韓國에 對한 市場潛在性에 關한 分析을 하였는데 그理由는 오늘날 蘇聯 및 東歐諸國의 經濟構造로 보아 長期的인 側面에 서의 市場의 潛在性이 적다면 南·北韓의 協력이 우리에게는 別로 큰 利得이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第4章은 問題點 및 長期對策으로 써 南·北韓經濟協力에 綜合的인 損益評價와 더불어 北韓이 장차 西方市場에 交易을 擴大할 경우 南·北韓의 經濟構造로 보아 相互補完的이 라기 보다는 相互競爭的인 性格이 크기 때문에 相互競爭部門에 對한 長期的 對備策을 言及하는 것으로 研究의 範圍를 限定하였다.

第 2 章 北韓의 貿易政策 및 現況

가. 北韓의 貿易政策 및 輸出入貿易現況

(1) 北韓의 貿易政策

北韓의 對外貿易에 關한 政策原理는 이른 바 「10大政綱」에 나타나 있다.

이政策의 第8項은 「自力更生의 旗幟아래서 自身の 力量과 資源을 最大限으로 動員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路線을 견지해 나가면서..... 中略

完全한 平等 및 互惠原則을 바탕으로 他國과의 經濟關係를 맺고 外國貿易을 發展시켜 나아갈 것이다」라고 對外貿易政策의 基本方向을 提示하고 이에 따라 우선 社會主義 世界市場을 第1次的인 對象으로 삼고, 北韓과의 經濟的 유대를 갖기를 希望하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모든 國家들 과도 貿易關係를 發展시켜 나아 간다는 자세를 取하고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不可分의 立場을 固守 하고 있다.

이같은 政策原理에 따른 구체적인 特徵은 첫째 國家管理를 前提로 하는 「計劃貿易」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같은 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行해지는 政府間의 貿易은 大部分 長期協定下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保護主義 貿易政策」이다. 國內産業保護라는 前提下에서 保護關稅, 貿易制限等 엄중한 國家統制下에 取해지고 있다.

세번째는 「平等互惠原則」의 표방이다. 互惠의 實効를 거두기 爲한 兩國間의 「바터」제의 채택등 二國間 貿易協定에 依한 去來를 原則으로 삼고 있다.

네번째는 貿易에 서의 「政經不可分の 原則」이다. 社會主義諸國과의 政經一致의 利害關係와 協同精神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交易의 相對에 따라 이 같은 基本姿勢가 完化되는 수도 있다.

對中立國 또는 一部 資本主義 國家와는 最近 經濟的인 利害關係에 입각하여 오히려 政經分離를 主張하는 경우도 있다.

以上과 같은 貿易政策의 基調가 最近의 東·西關係에 動向에 따라 어느정도 轉換될 可能性이 없지 않음은 앞으로의 北韓貿易의 向背를 展望하는데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反面에 資本主義經濟에 서는 生産, 分配 그리고 流通이 모두 價格機能을 媒介로 한다. 그럼으로 國際貿易에 있어서도 價格의 比較가 1次的인 交易의 可能性을 決定하는 基準이 된다. 商品交易은 産業構造와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으며 兩國間의 産業構造의 차이에 따라 比較優位가 定해지기 때문이다.

反面 社會主義經濟에 있어 서는 비록 價值法側이나 價格現象이 存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經濟의 調節者는 아니다.

社會主義 經濟에서는 모든 經濟行爲가 經濟計劃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計劃 自体가 唯一한 經濟의 調節者인 것이다. 따라서 計劃과 實績의 乖離가 發生하면 計劃을 調節하는 것으로 써 全体經濟는 움직이는 것임으로 資本主義經濟에 서의 價格機構와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은 對칭關係에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의 貿易은 計劃執行에 따른 物的 需給均衡의 變化를 補完하는 性質의 것임을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이같은 貿易은 「計劃需給均衡」상의 過不足을 메우는 性質의 것이기 때문에 價格機構의 作用에 따라서 企業化해 나아가는 過程으로 나타나는 資本主義諸國의 貿易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

貿易에 있어서는 同一商品의 去來持續性을 予想할 수 없다는 事實이다.

이같은 政策의 基本構造下에서 社會主義經濟政策은 經濟成長率의 可速化와 大單位工場 生産制를 實現하기 爲해서 生産手段의 生産強化에 集中的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重工業 優先策으로써 重化學工業을 優先적으로 建設하고 있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特히 工作機械類生産을 最優先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資本主義經濟에 서의 産業發展過程과는 反對의 길을 追求하는 것이 社會主義 經濟의 特徵이다.

(2) 輸出入 貿易現況

北韓의 貿易總額은 1次 5個年 計劃이 끝난 지난 1961年度의 輸出이 約 1億 6千萬弗이며 輸入이 約 1億 6千 6百萬弗로써 대체적인 輸出入의 均衡을 유지하고 있었다. (表 2-1)

〈表 2 - 1 〉

北韓의 對外貿易推移

(單位：千弗)

年度	輸出	輸入	合計	前年 增減率(%)	指數 60 = 100
1946			11,390		
1955	45,000	60,250	105,250		
1960	154,000	166,000	320,000		100
1961	160,000	166,400	326,400	2.0	102
1962	224,000	128,510	352,510	8.0	110.2
1963	190,680	230,080	420,760	19.4	131.5
1964	193,440	222,240	415,680	-1.2	129.9
1965	218,930	231,250	450,180	8.3	140.7
1966	245,650	241,890	487,540	8.3	152.4
1967	222,500	217,500	440,000	-9.8	137.5
1968	276,700	306,120	582,820	32.5	182.1
1969	306,720	389,370	696,090	19.4	217.5
1970	330,745	374,807	705,552		

資料： 北韓現況，國際問題研究所 1971. 3.

以後 8年間 輸出은 年平均 11.8%의 增加를 이루어 지난 1969年度의 3億 6百萬弗 輸入은 年平均 15%의 增加를 이루어 3億 8千 9百萬弗로써 貿易總額은 約 6億 9千 萬弗에 達하였으며, 지난 70年度에는 輸出 約 3億 3千 萬弗 輸入이 3億 7千 3萬弗로써 5千 萬弗정도의 入超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北韓의 貿易總額 가운데 에서 總輸出入의 52.8%는 對蘇去來이며 全体共產圈 去來依存率은 81.7%이고 其他 地域의 去來는 18.3%에 不過한 事實을 볼수 있다. (表 2-2)

따라서 北韓의 非共產圈去來는 1億 2千 8百萬弗에 不過하며 其中 輸入은 5千 萬弗에 不過할 뿐 이다.

한편 北韓이 自體의 經濟計劃推進에 必要로 因하여 非共產圈諸國에서 輸入하고자 商談을 벌이고 있는 品目을 볼것 같으면 北韓의 工業化 段階와 政策推進方向을 짐작할 수 있다.

即 지난 1959年 以後 北韓이 日本側에서 輸入하고자 하는 分野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水力發電施設, 石油精製施設, 合成樹脂工場, 洗劑工場, 「나이론」工場, 「아클리락」工場, 「알미늄」工場, 船舶, 「디젤엔진」工場, 製紙工場, TV放送設備, 石油化學콤비나트等이다.

또한 仏蘭西에서 TV放送施設, 精油施設, 아크릴릭工場을 西獨에서 發電所, 製靴工場, 製鉄, 石油化學工場을, 英國에서도 石油化學關係工場 테트론工場, 「핀란드」에서 製紙工場,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冷間圧延工場을 輸入하고자 商談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2 - 2〉 北韓의 輸出入 現況 (1970年度)

(單位：千弗)

	輸 出	輸 入	合 計	構 成 費
共 產 圈	252,219	324,652	576,871	81.1%
蘇 聯	143,000	230,000	373,000	52.8%
中 共	50,000	50,000	100,000	14.1
東 獨	141,672	10,847	25,519	0.4
폴 랜 드	10,235	8,622	18,857	0.3
체 코	12,089	3,055	15,138	0.2
루 마 니 아	6,000	7,883	13,883	0.2
쿠 바	9,620	7,770	17,320	0.2
其 他	6,609	6,545	13,154	0.2
亞 細 亞	43,127	29,388	72,516	10.2
日 本	34,414	23,344	57,758	8.1
싱 카 폴	3,576	4,007	7,583	0.1
홍 콩	3,900	263	4,163	-
파 키 스 탄	637	1,537	2,174	-
其 他	600	237	838	-
유 럽	32,588	17,532	50,120	7.1
西 獨	12,792	7,428	20,220	0.3
英 國	14,448	3,768	18,216	0.3
오스트리아	303	4,020	4,324	
벨 기 에	1,790	70	1,860	
이 태 리	410	1,395	1,805	
仏 蘭 西	1,140	460	1,600	
네 델 런 드	1,141	88	1,229	
其 他	564	303	867	
中近東阿州	2,111	1,405	3,516	0.04
其 他	699	1,830	2,529	100.0
合 計	330,745	374,807	705,552	

이러한 一聯의 輸入商談을 分析하여 볼때 北韓이 經濟적으로 必要한 것은 工場建設을 爲한 施設이지 消費財나 原資材가 아니라는 것은 分明하다.

바꾸어 말하면 北韓이 必要로 하는것은 그들의 經濟計劃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現代的 設備이며 이를 通해서 国内消費財를 供給하겠다는 方針이다.

即 이와같은 産業施設導入에 必要한 支払手段을 爲하여 北韓은 鐵鉍石, 無煙炭等 鉍物과 鐵鋼, 亜鉛, 銑鉄, 圧延鋼材, 金屬製品, 水産物等を 輸出하고 있다.

지난 1965年現在 北韓의 輸出品目構成은 鉍物類, 黑色, 有色金屬이 中核을 이루어 輸出總額의 46.8%를 占하고 있으며 (表 2 - 3) 특히 金屬類는 約 40% 가까운 比重을 찾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金屬工業의 第1次 工程製品이 大部分이며 加工品은 30%線 以下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農産物 12.2%, 建材 10%, 化學製品 8%, 食料品等이 큰 比重을 찾아 하고 있다.

이같은 輸出品目の 構成은 여타의 開發途上國에 比하여 發展된 輸出貿易構造를 갖인 것으로 볼수 있다.

한편 輸入構成은 機械類의 自給度 90%以上을 目標로 하면서 機械 및 設備가 30.2%로써 大宗를 이루고 있으며 燃料 및 燃油 19.3% 「펄프」 및 紙類 10.4%, 農産物 10%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表 2 - 3〉

北韓의 輸出品目 構成比 (1965年)

分 類	構 成 率 (%)	分 類	構 成 率 (%)
機械 및 設備	5.2	建 材 類	10.0
電 氣 資 材	2.0	섬유, 섬유제품	0.5
燃料 · 燃油	4.0	農 産 物	12.2
鉍 物 類	7.2	식료기호품	6.4
黑色, 有色金屬	39.6	水 産 物	3.0
化 学 製 品	8.0	其 他	1.8

資料： 國際問題研究所

나. 北韓의 對共產圈 貿易現況

(1) 對 蘇 貿 易

北韓의 貿易依存度 47%가 넘는 1969年度 對蘇貿易実績을 통하여 貿易構造를 商品類別로 본다면 鉍物性 原料 및 金屬이 31.4%로써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建材 20%, 쌀을 포함한 食品 18.3%, 衣類 8.4% 機械 및 設備 5.2%의 順位를 이루고 있다. (表 2 - 4)

北韓은 鋼材 및 各種鉍物性 原料와 建材, 食品等を 主로 하고 약간의 衣類와 機械類를 輸出하고 있다.

商品別 對蘇貿易 1億 2千 8百萬「루블」에 達한 70年度の 對蘇

〈表 2 - 4 〉

北韓의 对蘇輸出構造 (1969年)

(单位：千弗)

品 目	金 額	構 成 比 (%)
總 額	125,300	100.0
鉍物性原料・金屬	(39,000)	(31.4)
鐵 鋼 製 品	33,800	27.0
非鉄金屬鉍同金屬	5,500	4.4
建 材	25,000	20.0
食 品	(22,900)	(18.0)
粟	13,600	10.9
其 他 農 産 物	9,300	7.4
衣 類	10,500	8.4
機 械 及 設 備	6,500	5.2
化 学 製 品	3,700	2.9
其 他	17,400	13.8

資料： 國際問題研究所

輸出을 商品別로 본다면 圧延鋼材를 위시하여 銑鉄, 非鉄金屬, 鉍物原料 및 金屬이 全体の 39.3%로써 首位를 占하고 있으며 다음이 建材 20%, 葉煙草 3%, 化學製品 1.3%의 順이다.

다만 北韓이 他地域에 對해 서는 輸出을 抑制하고 있는 圧延鋼材를 蘇聯에 對해서 만은 莫大한 量을 輸出한 것은 蘇聯으로 부터의 많은 機構類 및 設備輸入에 對한 補償輸出의 性格을 띄우고 있는듯 하다.

한편 지난 70年度에 對蘇 輸入總額 2億7千萬「루블」 가운데 首位를 占하고 있는 것은 역시 機械 및 設備로서 그 內容은 完全工場設備, 自動車修理設備, 其他 各種計器 및 實驗設備, 動力設備의 順이고 그 가운데 特히 總輸入額의 30.7%를 占하고 있는 完全工場設備의 輸入은 北韓의 소위 社會主義 工業化政策과 關聯하여 注目되는 바 있다.

다음은 燃料, 鉍物性原料, 金屬 27.8% (石炭 및 그製品, 코크스 圧延鋼의 順) 小麦 97%, 非食用植物, 動物性原料 5.6%, 化學製品 및 타이어, 消費物資 3.3%, 食品 3.2%, 建材 0.1%의 順이다. (表 2 - 5)

(2) 其他共產圈 貿易

其他共產圈 貿易에 있어서도 輸出入商品種類에 있어 서는 對蘇貿易의 경우와 큰 差異가 없으나 對象國家에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商品別 輸出入 比重에 상당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表 2 - 5〉

北韓의 对蘇 輸入構造 (1969年)

(單位：千弗)

	金 額	構 成 比 (%)
總 額	199,500	100.0
機 械 및 設 備	67,350	33.8
燃 料 , 鉍 物 性 原 料	(56,600)	(28.2)
石 炭 , ㄱ크스	16,600	8.2
石 油 製 品	29,400	14.7
鐵 鋼 製 品	10,600	5.4
消 費 物 資	16,700	8.4
化 學 製 品 , 生고 무	(11,000)	(5.6)
化 學 製 品	6,500	3.3
타 이 어	4,500	2.3
小 麥	10,000	5.0
綿	8,100	4.1
其 他	29,800	14.9

資料： 國際問題研究所

(가) 对中共 貿易

輸出入 共히 5,000 萬弗로써 鐵鉍石, 高速度鋼, 銅, 세멘트, 肥料, 果實, 海産物, 人蔘, 카바이트, 工具類를 輸出하고 있으며 綿製品, 無煙炭, 타이어, 電信機械, 化工原料, 鋼製, 망강, 硫黃, 코크스를 輸入하고 있다.

(나) 对東独 貿易

1千4百萬弗 相当의 鐵, 有色金屬, 마그네샤크링카, 輕工業製品, 農水産物, 黑鉛等을 輸出하고 있으며 1千80萬弗 相当의 船舶設備, 알미늄, 肥料, 化学機械, 大型工作機械, 工業設備, 医薬品, 化学製品 等을 輸入하고 있다.

(다) 对폴란드 貿易

1千萬弗 相当의 各種工作機械, 工具類, 마그네샤 크링카, 合金鋼材, 螢石, 輕工業製品, 非鐵金屬等을 輸出하고 860萬弗 相当의 工作機械, 機械設備, 합성고무, 타이어, 코크스, 化学製品等을 輸入하고 있다.

(라) 对체코 貿易

1,200萬弗 相当의 工作機械, 마그네샤 크링카, 鉀延製

品, 煙草, 鉍物類, 海産物, 電氣鉛, 輕工業製品等を 輸出하고
310 萬弗 相當의 機械設備, 工作機械, 베어링, 醫療器具, 化學
製品, 放送機材等を 輸入하고 있다.

(마) 淸江加里 貿易

80 萬弗 相當의 工具類, 마그네샤 크링카, 化學製品,
輕工業製品, 有色金屬, 綿製品, 海産物, 銻鉛을 輸出하고 290
萬弗 相當의 紙類, 醫療器具, 化學製品, 輕工業設備, 實驗器具
電子製品等を 輸入하고 있다.

(바) 淸魯마니아 貿易

600 萬弗 相當의 工作機械, 合金鋼材, 탱크스텐, 非金屬
鉍物, 農水産物, 銑鉄을 輸出하고 780 萬弗 相當의 機械類, 타
이어, 베어링, 코크스, 化學製品, 輸送裝備, 醫藥品, 알미늄
線을 輸入하고 있다.

(사) 淸알바니아 貿易

582 萬弗 相當의 變圧器, 試錐機, 各種機械附屬品等を 輸
出하고 123 萬弗 相當의 銅, 크롬을 輸入하고 있다.

(아) 对불가리아 貿易

100 萬弗 相当의 機械, 鋼材, 輕工業製品, 마그네샤
크링카, 직물, 세멘트等を 輸出하고 있으며 約 75 萬弗 相当의
機械類, 化学製品, 医薬品, 輕工業製品等を 輸入하고 있다.

다. 北韓의 對自由圈貿易現狀

北韓의 地域別 輸出入構成比率을 본다면 지난 1969年度에 約 70個國과 交易의 關係를 맺고 있는데 輸出에 있어서는 對共產圈이 約 71% 對自由圈이 約 21%, 對中立圈이 約 7%이고 輸入에 있어서는 對共產圈이 約 76% 對自由圈이 約 21% 對中立圈이 約 5%이다.

이와같이 自由圈과의 貿易이 約 20%以上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現象은 지난 1968年 以後부터 貿易量이 漸次 增加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西歐貿易에 있어서의 緩和된 貿易政策과 資本主義陣營에 있어서의 輸出競争의 激化를 背景으로하여 北韓과 西歐諸國間의 貿易은 1964年 以後 活發해 졌다. 西歐諸國은 北韓 工業化의 推進에 따른 「프랜트」需要增大에 注目하여 무엇보다 「프랜트」輸出에 積極性을 보여 왔다.

지난 1963年에서 1964년까지만 보더라도 白耳義, 英國, 和蘭等에 西歐諸國에 貿易技術代表團이 빈번히 北韓을 訪問하여 貿易의 交渉을 하여 왔다.

이때 和蘭은 「콤포렛서」9基, 10萬屯의 尿素프랜트, 7,000屯의 冷凍運搬船을 各各 5年 延払條件으로 北韓에 輸出키로 하였다. 西獨도 北韓을 訪問하여 火力發展設備의 輸出을 交渉하였을 뿐 아니라 英國과도 貿易協定에 調印하게 되었다.

北韓의 西歐諸國에 對한 交渉도 活發하여 1963년부터 1964年

에 걸쳐 貿易技術團을 佛蘭西 和蘭等地에 派遣하고 있다. 그리고 東南亞를 비롯한 後進地域과의 經濟交流도 活發해 졌다.

또한 1968年부터 平壤과 파리에 通商代表部를 相互設置한 佛蘭西外에 西獨, 英國, 和蘭,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北韓과 貿易去來를 擴大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서 「오스트리아」는 「비엔나」에 北韓의 通商代表部 設置를 認定하고 있으며 이들諸國들의 各種設備輸出의 條件은 5-10年 延払에 金利 年 5-5.3%이다.

라. 北韓의 對日貿易現況

日本은 對北韓輸出에 있어서 輸出入銀行의 融資가 認定되지 않아 長期延払輸出이 不可能했기 때문에 大型機械設備輸出에서 西方諸國에 뒤지게 되었다.

佛蘭西, 英國, 和蘭은 韓國戰爭때 參戰國이고 「오스트리아」는 韓國과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國家들이다.

특히 西獨은 獨逸 軍國主義의 復活이라는 點에서 共產主義 陣營으로 부터 警戒되고 있다. 이러한 西方諸國과 北韓의 經濟去來는 政治나 「이데오로기」를 外面하면서 實利에 집착되고 있다. 특히 北韓으로 부터 日本軍國主義라고 낙인을 찍힌 日本은 北韓市場을 西歐諸國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초조감에서 國際情勢變化를 背景으로 日本, 北韓의 覺書貿易의 協定까지 맺게 되었다. 이제 美, 中共接近에 따르는 日本의 態度變化와 日本 北韓間의 貿易關係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美·日是 中共과 接近하면서 北韓과 어떠한 關係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日本은 美國의 極東戰略의 一翼을 担当하여 中國大陸과 台灣의 分離, 韓國의 南, 北分斷이란 狀態하에서 美·日·韓·臺의 反共불력을 形成하여 왔다. 이리하여 1969年 11月 日本의 自民黨 政府는 美·日共同聲明에서 韓國의 安全을 日本自身の 安全에 있어서 緊要한 것이 라고 主張하게 되었다. 그러나 美·中共接近은 美國의 共產主義國家에 對한 態度를 서서히 바뀌게 하고 있으며, 日本의 産業界는 美·中共接近을 계기로 하여 中共接近 무드드에 들떠 있다.

지난날 日本이 中國에서 저지른 과오를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가 하면 一部 企業人들은 自由中國에서 재빨리 손을 떼고 對中共貿易의 루트를 開拓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關心事는 日本과 北韓의 接近이다. 平壤을 訪問한 日本의 國會議員들로 構成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代表團長과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가 1972年 1月 23日 相互貿易擴大를 爲한 合議書에 調印하고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이사태는 지난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以後 韓·日關係에 最大의 市런을 안겨주고 있다.

1971年 8月 南·北赤十字會談을 계기로 日本內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北韓과의 交流擴大 推進委員會의 첫번째 구체적인 表現이라는 점에서 크게 警戒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기 南·北間의 7.4 共同聲明은 이같은 事態를 더욱 더 促進시키는 要因이 될 것이다.

日本 北韓間の 協定은 日本 中共間の 覺書貿易과 같은 것이며
合意된 内容은 ① 順次的으로 貿易量을 늘려 5年後인 1976年
에는 兩國이 約5億2千萬弗로 하고 ② 相互 21個의 輸出品目을
指定하고 日本의 大規模 設備輸出은 8年以上의 延払로 한다. 따
라서 輸出入銀行의 資金이 許容된다. ③ 相互商品展示會를 開催
하고 東京과 平壤에 通商代表部를 設置한다. ④ 貿易代表團과 技
術者交流를 促進하며 이들의 往來에 따른 入国査証이 自国關係機關
과 절충하여 지체없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⑤ 協定の 有効期間
을 1976年 12月31日로 한다는 것 等이다.

또한 1971年 1月 25日 發表된 共同聲明은 經濟 文化人의 交
流를 促進하고 日本政府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저해해서 는 않
되며 内政에 간섭해 서도 않된다는 것이다.

日本 北韓間の 1970年度 貿易額은 約5千8百萬弗로써 前年度의
5千6百萬弗보다 增加되고 있으나 韓.日間の 貿易規模 10億弗에
比하면 比較가 되지 않는다. (表2-6)

現在 日本의 對共產圈 貿易中 日本 北韓의 貿易은 日.蘇貿易
日.中共貿易에 다음가는 第3位에 이르고 있다.

去來品目으로 서는 日本에서 北韓으로 約720品目 北韓에서 日本
으로 約90個品目이 去來對象이 되고 있으며 内容的으로 는 1968
年度에 경우 日本의 輸出에서 機械類와 化學品이 全体에 61%를
찾이하고 있으며 그밖에 纖維類 紙類 鐵鋼 金屬製品 雜製品等이다.

輸入의 中心은 鉍物로써 鐵鉍 亜鉛鉍 非鐵金屬 鐵鋼 纖維原料
農水産物 無煙炭等이다. (表2-7)

<表 2 - 6>

日本・北韓貿易의 推移

(單位：1,000 弗)

年 度	日本の 輸出	日本の 輸入	合 計
1 9 6 1	4,938	3,976	8,904
1 9 6 2	4,781	4,533	9,337
1 9 6 3	5,347	9,430	14,774
1 9 6 4	11,284	20,231	31,515
1 9 6 5	16,505	14,723	31,228
1 9 6 6	5,016	22,692	27,708
1 9 6 7	6,370	29,606	35,976
1 9 6 8	20,748	34,032	54,780
1 9 6 9	24,160	32,190	56,350

資料：「日朝貿易」 1969年 7月分

日本の 対北韓 輸出 가운데 특히 注目되는 것은 機械類 輸出의 成長이다.

1969年度에 는 輸出總額 가운데 約 52% 内外를 機械類 輸出이 占하고 있다. 이같은 機械類의 輸出動向을 본다면 1956年度까지는 主로 酸素分離機, 덩푸트럭 등이 1968년부터는 金屬加工機械, 通信器, 加熱冷却用機, 電氣計測機, 其他計測機 등이 1969년에는 金屬加工機械, 콘덴서 등의 輸出이 增大되었다.

<表 2 - 7>

日本・北韓間에 貿易品目 (1968年)

(單位：1,000弗)

日本의 輸出		日本의 輸入	
機 械 類	7,394	鐵 鋼	15,034
化 學 製 品	3,701	金 屬	9,244
鐵 鋼	2,699	織 維 原 料	2,237
織 維 製 品	1,943	非 金 屬 鉍	2,089
原 資 材	1,935	石 炭	1,490
紙 類	660	農 水 産 物	1,443
金 屬 製 品	504	非 金 屬 鉍	2,089
油 脂	226		
雜 製 品	1,465	其 他	689
其 他	561		
輸 出 合 計	20,748	輸 入 合 計	34,032

資料：「日朝 貿易」 1969年 7月

1968年 - 69年에 걸쳐 工作機械, 콘덴서, 各種設備等 大型去來를 中心으로 하면서 多樣化 되었다. 이같은 事實은 北韓이 機械, 電力, 化學織維等 各種의 工場建設과 技術革新을 推進하고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去來가 多樣化되고 大型化됨에 따라서 支払條件 關係者 往來問題 輸出金屬等이 크게 提起되고 있다. (表 2 - 8)

<表 2 - 8) 北韓의 对日本機械類輸入比率

(單位：%)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輸出總額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機械合計	9.3	24.1	16.7	19.0	39.0	52.1
一般機械	2.3	13.8	6.7	8.6	20.3	30.2
電氣機械	5.7	2.5	5.9	7.2	15.3	18.5
輸送機械	1.0	7.3	2.2	1.4	0.8	0.8
精密機械	0.3	0.5	1.9	1.9	2.6	2.6

資料：「日朝貿易」 1970年 2月

日本이 北韓과의 直接去來를 許可한것은 1961年 4月이고 처음에는 強制 「바터」地域으로 指定되어 直接決裁도 禁止되었다. 그리고 1971年 1月까지 日本外務省은 北韓에 旅券發給을 거부하여 왔다. 그리고 对北韓輸出에 있어서 輸出入銀行의 資金使用도 1972年 1月에 日本 北韓과의 党書貿易이 調印될때 까지 認定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貿易業者들은 輸出金融을 市中銀行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金利負擔面에 서도 長期延払輸出이 不可能하였다.

그리고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 끼어 共產圈諸國으로 부터 援助가 끊어지고 軍事力을 한층 強化해야 하는 事態下에서 7個年計劃

이 失敗로 돌아간 60年代에 있어서 北韓은 對日貿易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北韓은 日本과의 貿易은 또한 距離上으로 보나 輸送問題에 特別한 이점이 있고 日本의 技術水準이 높아 製品의 질이 우수하며 또한 日本内에는 韓国人이 많이 산다는 利點을 들어 貿易의 擴大를 期待하였다.

또한 北韓이 日本을 包含한 西方側 諸國과의 勞力을 기울이고 있는 理由는 지난 1970年度에 끝난 7個年計劃과 1971년부터 始作한 6個年計劃도 工業 農業의 전반에 걸쳐 技術革新을 重點的인 課題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併進策을 내세워 軍事力 強化에 注力하고 있는 北韓은 必要한 大型機械와 各種設備類의 調達을 爲해서는 共產圈貿易만으로는 不足하기 때문에 技術水準이 높은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에 서 구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第 3 章 國際市場에서의 競争 및 協力 의 可能性

가. 東, 西貿易의 擴大와 韓國의 非敵性國 交易의 可能性

1960年代 前半期까지의 東, 西貿易은 東歐와 西歐間에 主로 原料와 製品의 補完的 交易이라는 制限된 形態에 局限되었으나 「후르시초프」의 失脚以來,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主義諸國들은 그들의 廢鎖的인 社會主義 統制經濟의 非能率을 克服하기 爲하여 「리베르만」의 利潤原理와 比較生産費의 原則에 따라 經濟體制의 自由化와 西方世界와의 交易增大를 積極推進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코메콘」諸國은 1969年初에 「코메콘」銀行(國際經濟協力銀行)을 創設하여 域內 交易의 增大와 社會主義諸國間에 多角決裁制度의 確立 및 共通通貨創出에 努力하였다.

그러나 1960 - 1969年까지의 10年間에 「코메콘」域內貿易의 年平均 增加率은 8.4%를 나타낸 데 對하여 蘇聯 및 「코메콘」諸國의 西方諸國과의 交易은 輸出의 年平均 11%, 輸入은 年平均 12%나 (表 3 - 1) 增加하여 共產諸國의 自由陣營諸國과의 交易의 構成比가 1955年의 26.5%에서 1970年度에는 38.2%로 增加하였다.

1971年 1月 1日부터 「코메콘」諸國은 새로운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共同으로 樹立하여 「코메콘」의 國際分業體制 強化와 産業全般에 걸쳐서 長期生産 및 需要計劃을 樹立하고 會員國間에 科學

<表 3 - 1>

東, 西貿易의 年度別 增加狀況

(單位 : 10 億\$)

	1950	1955	1960	1965	1969	1970
共產圈 貿易總額	10.7	19.2	33.8	68.5	65.5	71.7
構 成 比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MECON 域內貿易	8.2	15.5	26.6	39.9	54.4	61.2
對自由國貿易	4.0	5.1	9.9	13.9	24.0	27.0
構 成 比 (%)	37.4	26.5	29.2	28.7	36.6	98.2

資料 : 蘇聯, 東歐 經濟速報, 1971, 12.25

技術用役의 交流와 交易의 增大로 生産의 能率向上과 消費生活 改善을 企圖하고 있다.

한편 美國은 「닉슨」大統領 就任以後 소위 「닉슨·독트린」을 구체화 시켜 東, 西關係를 60年代 前半期까지의 「對決의 時代」에서 「協商의 時代」로 改善시키며 美國의 過重한 防衛負擔 輕減과 統合歐州와 日本에 對해 世界安保에 對한 기여 및 美國의 國際收支改善에 協力할 것을 要請하였으며 中共의 國際政治舞臺進出을 묵인함으로써 蘇, 中共, 日本, 歐州, 美國이라는 새로운 勢力均衡을 구축하는 外交努力을 展開하였다.

이와같은 努力의 일환으로써 1959年 5月の UN決意와 美國의

Battle Act로 結成된 对共産輸出調整統制委員会 (COCOM)의 機能을 1969年以後 急速히 弱化시키기 始作하였다.

다시 말하면 1969年 7月과 12月, 1970年 4月에는 海外에 所在하는 美国人 企業의 对中共交易을 承認하였으며, 1971年에 접어들어서는 「핑퐁」 외교의 여세를 몰아 4月 14日에는 对中共銀行의 制限을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表 3 - 2)

1970年 6月 10日에는 美国에 共産圏 輸入에 对한 自由承認 「리스트」 133個 品目이 發表되었으며 그後 1971年 10月 22日에는 中共이 U.N.에 加入한 後 1972年 2月 14日에는 美国이 对共産圏 輸出統制規制에 있어서 中共은 最下位 Group 에서 Group Y로 格上된 바 이미 1960年初부터 西歐와 東歐諸国間에는 交易量이 括目하게 増大되어 왔으며 日本 또한 中·蘇間 交易中斷을 利用 对中共 및 对蘇, 对東歐 貿易을 拡大시켜 온데 比하여 自由陣營諸国中 对共産圏 交易에 가장 냉담하였던 美国마저 1969年以後 对共産圏關係改善과 通商増大를 積極推進함에 따라 韓國도 國際情勢와 貿易環境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爲하여 非敵性 共産圏 및 中立諸国에 对한 交易을 推進하여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越南戰의 激化와 北韓의 妨害工作等으로 因한 韓國의 对共産圏 交易은 實質的인 成果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의 对中共産別 関稅, 撤廢와 对北韓交易의 積極 推進으로 우리나라 輸出商品構造와 類似한 中共 및 北韓産製品의 日本 및 東南亞市場에서의 競爭이 一部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北美州 및 歐羅巴를 包含한 全世界市場에서 한층 熾烈하게 競爭이 벌어질 것으로

<表 3 - 2>

東，西間 交易推移 (輸出 베이스)

(單位：10億\$)

年 度	世 界 總輸出額	圈 內 輸 出 額		東 . 西 交易總計	東 . 西 間 輸 出 額	
		資本主義圈	社会主義圈		資本主義圈 → 社会主義圈	社会主義圈 → 資本主義圈
1961	133,850	112,580	10,710	9,500	4,710	4,790
1965	186,400	156,490	13,770	15,000	7,380	7,620
1968	239,070	202,410	16,640	18,510	8,750	9,760
1969	272,570	231,890	18,060	20,640	9,740	10,900
1970	311,260	266,320	19,980	23,430	11,250	12,180

資料： 1961 - 67年 輸出額은

U.N. Statistical Year Book, 1968

1968 - 70年 輸出額은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June, 1971

보인다.

더우기 中共의 U.N. 常任理事국에 로의 登場과 最近의 「닉슨」 大統領의 北京 및 「모스크바」訪問으로 一部 對共產國市場을 自制하여 오던 日本을 爲始한 東南亞諸國과의 「아프리카」 中南美諸國의 對 對中共交易은 더욱 增大될 展望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韓國과 北韓 및 中共과의 輸出競争關係에 있어서 競爭對象 市場은 대체로 世界市場 全域이 되며 지난 1970年度의 輸出実績을 基準으로 하여 우리나라 競爭度가 높은 地域의 順位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表 3 - 3)

한편 輸出商品別 競爭關係를 보면 事實上 全體輸出商品이 競爭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中共과의 競爭關係에서 가장 두렵게 생각되는 것은 價格問題라 할 수 있다.

即 中共이 利潤을 度外視한 低價格主義의 採択이 明白한 事實임에 비추어 韓國으로서는 이점을 充分히 警戒하고 對備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이란 價格以外에도 品質과 「디자인」 및 包裝 그리고 去來方法과 商標에 對한 信認度等 綜合的인 要素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임으로 品質의 高級化 및 包裝의 改善, 適應性있는 市場開拓의 努力을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아 감으로써 險路를 克服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오늘의 東歐諸國은 經濟發展段階와 歷史的, 地理的 그리고 産業構造의 차이로 相互間의 여러가지 相異점이 있으나 「유고」를 除外하고는 2次 世界大戰以後 蘇聯式의 社會主義體制가 他律的 힘에

<表 3 - 3 > 韓國과中共과의輸出競合地域

(1970年)

輸出対象地域	輸出에 대한占有率 (%)		競合順位
	韓 国	中 共	
日 本	23.5	11.9	1
홍 콩	3.8	21.9	2
西 独	2.7	3.9	3
카 나 다	1.5	0.9	4
싱 가 폴	1.4	5.9	5
和 蘭	1.3	1.3	6
英 国	1.2	3.8	7
스 웨 덴	1.0	0.9	8

資料： 海外經濟報，第3号，海外經濟研究所 1972,2,12

依하여 導入되었고 特히 1960年代 初부터는 經濟政策을 比較的 自由化시켜 왔으며 最近에는 貿易管理도 國家의 独占體制에서 상당히 弱화시키고 있으며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다음 몇가지 共通點을 갖고 있다.

① 東歐共產圈國家는 「코메콘」域内外를 不問하고 主로 貿易協定에 依한 交易을 常用하고 있는데 域内에는 5年以上의 中·長期로, 域外는 1年을 原則으로 하되 每年 當事國間에 異議가 없을 때는 自動

的으로 時効가 延長되고 있으며

② 原則적으로 貿易은 國家의 綜合經濟計劃에 依拠 外國貿易省이 관장하여 國營貿易商社가 輸出入을 品目別로 專担하여 왔으나 最近에는 一部 生産組合이나 大單位生産企業 自體가 直接輸出入 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③ 東歐諸國은 域外貿易決裁에 所要되는 交換性通貨인 美「달러」 英「파운드」貨의 通貨不足때문에 國際收支均衡을 爲하여 輸出로 獲得된 外換의 範圍內에서 輸入을 許容한다는 原則을 交易相對國家 또는 輸出入機關別로 준수시키고 있다.

특히 留意하여야 할점은 輸出을 하기 爲하여는 반드시 그들로 부터 対応輸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④ 또한 이들 諸國은 繼統적인 産業化에 必要한 原理와 先進技術 및 施設財의 導入과 그들의 落後된 消費産業으로 因한 消費材 輸入에 注力하고 있으며 西方諸國과의 合作事業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最近의 現象이다.

이같은 現況을 본다면 東歐諸國과의 交易은 머지않아 實現될 可能性이 크며 특히 南·北協力이 如意케 進行된다면 그 展望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自由陣營에 서의 北韓의 輸出競合比較

國際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競爭 및 協力の 範圍를 찾기 爲하여 이제껏 北韓의 對共產圈貿易關係, 對西歐貿易 및 對日貿易의 現況을 살펴 보았다.

특히 1960年代 中半期 以後부터의 特異한 事項은 韓國의 對共產圈貿易은 이제껏 實現되지 않고 있는데 比하여 北韓은 지난 1969年 現在 約 70個國과 交易關係를 맺고 있는 가운데 輸出에 있어서는 對共產圈이 約 71%, 對自由圈이 約 23.4%, 其他中立圈이 7%를 占하고 있다는 事實이며 그中에 亦도 對日貿易은 每年 急增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節에 서는 日本을 包含한 自由陣營의 主要市場에서 北韓과의 競合關係를 分析함으로써 第4章에서 北韓과의 協力에서 야기되는 問題點의 損益評價를 始圖하고자 한다.

따라서 北韓의 對自由陣營 市場占有率 및 較出商品의 競合率과 韓國에 對한 蘇聯 및 東歐諸國의 市場潛在性이 評價의 基準이 됨은 勿論이다.

(1) 南·北韓의 貿易構造 比較 (對自由陣營)

1969年度 北韓의 貿易規模 6億 9千萬弗은 同年 韓國의 總貿易規模 24億 4千萬弗의 28.5%에 不過하며 이를 다시 北韓의 對自由陣營貿易額 1億 5千萬弗에 限定한다면 그 比率은 約 6.2%로 줄어 든다.

그리고 北韓의 貿易總額에 있어서 對自由陣營貿易額이 占하는 比率

은 輸出의 경우 23.4%, 輸入의 경우 24.6%이다. 따라서 현저한 量的 差異를 보이고 있는 南·北韓의 對自由陣營 貿易構造를 直接比較하는 데에는 數字上的 無理가 있다고 하겠으나 北韓의 商品別 輸出入構成이 對共產圈의 경우나 對自由陣營의 경우나 다같이 유사한 類型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선 南·北韓 貿易構造를 比較한 다음 競合關係를 찾아 보기로 한다. (表 3-3)

韓國은 雜製品 39%, 原料別製品 27.8%, 非食用原料, 11.7%, 食料品 및 煙草 10.5%, 機械類 8.5%의 順으로 輕工業製品의 輸出이 為主가 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原料別製品 48.5%, 非食用原料 39.2% 食料品 및 煙草 7.8%로써, 具體的 商品別로는 重工業製品 내지 工業原料인 各種鐵鋼材를 비롯한 非鐵金屬 및 그 製品 44.5%, 鐵鉍, 亜鉛鉍, 金屬鉍이 22.4%의 輸出이 主가 되고 食料品 및 담배의 輸出은 韓國과 비슷한 比率을 보이고 있으나 機械類의 輸出은 0.14%로서 最下位를 占하고 있어 對蘇輸出에서 5.2%로 보인 것과 뚜렷한 對照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韓國의 同地域의 機械類輸出 8.5%에 比하여 極히 낮은 比率이다.

(2) 對自由陣營 貿易競合構造 比較

對自由陣營 南·北韓貿易의 競合構造를 보기 爲한 韓國만의 主要輸出品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韓國의 對自由陣營輸出 6億2千2百萬弗 가운데 여기서 競

<表 3 - 4> 对自由陣營南・北韓輸出構造比較(1969年)

(單位：1,000弗)

品 目	韓 国		北 韓	
	輸 出 額	比 重	輸 出 額	比 重
總 計	622,516	100.0	54,825	100.0
산 동물, 食料品, 煙草	65,128	10.5	4,252	7.8
非食用 原 資 材	73,042	11.7	21,490	39.2
鉱物性 燃料, 潤滑油	4,837	0.8	825	1.5
動物性 및 植物性油脂	68	1	-	-
化 学 品	9,754	1.6	248	0.5
原 料 別 製 品	173,827	27.9	26,637	48.6
機械類 및 運搬器類	53,219	8.5	75	0.1
雜 製 品	242,345	39.0	231	0.4
未 分 類	295		-	
其 他 商 品			1,067	2.0

습이 되지 않는 輸出商品 1億7千萬弗의 主要內訳은 다음과 같다.

即 100萬弗以上 500萬弗以下로는 鉛鉍, 石油 및 그 製品, 人造 프라스티크製品, 고무製品, 알루미늄, 非電氣의 原動機, 섬유, 皮革機械, 旅行用具等이다.

한편 1969年 現在 北韓과의 輸出競合構造를 보면 韓國의 總輸出 1億2千萬弗가운데 北韓의 競合比率은 8.8% 競合되는 項目間의 比率로는 12.3%로써 우선 數量的으로 본 競合關係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69年現在로서는 不過 몇 商品을 除外하고는 크게 問題될 程度의 競合關係는 없다.

왜냐하면 韓國側의 有利한 商品에 對해서는 北韓의 輸出이 적기 때문이다.

산動物, 食料 및 煙草 (競合比 6.6%) 韓國側 輸出 100萬弗以上으로써 北韓의 商品과 10%以上の 競合率을 보인 商品은 穀類 및 그 製品, 설탕류, 煙草 및 그 製品等 3個에 지나지 않고, 競合比가 0.7%에 不過하지만 北韓側 輸出이 200萬弗이 넘는 것으로서는 魚介類가 있다.

韓國側 輸出이 2,000萬弗 以上으로써 北韓側과 相當한 競合을 보인 商品으로서는 競合比 10.8%의 生糸, 50.8%인 金屬鉍의 경우가 注目되고 韓國側 輸出, 700萬弗台의 것으로써 競合比 59%인 天然 肥料이나 23%를 보인 香料, 人蔘의 경우에는 相當한 競合을 보이고 있다.

鉍物性 燃料인 石炭, 코크스에서 30.7%의 競合率을 보이고 動

物性 油脂는 競合關係가 없다.

化學製品도 거의 없고 原料別 製品에 있어서는 數字上으로는 鐵鋼, 非金屬 및 그 製品에서 171.9%의 競合關係를 보이고 있으나 商品別로 보면 韓國輸出額 363萬弗인 銅鍛의 경우 北韓側의 輸出이 거의 없고 北韓側의 輸出이 많은 亞鉛(754萬弗) 銑鐵(123萬弗) 銅(114萬弗)의 경우 韓國側 輸出이 거의 없어서 事實上 競合關係가 없다.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類는 競合關係가 거의 없고 雜製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69年 現在 北韓側과 自由陣營에서 競合되는 商品은 穀類, 煙草, 生糸, 天然肥料, 人蔘, 鉄鉍, 亞鉛鉍, 石炭 및 코크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에 있어서 北韓과 自由陣營間의 政治的 制約이 어느 정도 緩和되는 경우를 想定한다면 現在의 競合關係에 相當한 變化가 있으리라고 豫想된다.

(3) 對自由陣營 南·北韓 輸出競合地域

對自由陣營 南·北韓貿易 全量을 比較할때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貿易에 對한 北韓貿易比는 8.8%에 지나지 않으나 北韓의 輸出貿易이 日本, 西獨等 先進工業國에 備重되어 있다는 事實은 注目되는바 있고 特히 1971-76年間의 北韓의 6個年計劃期間 동안에 消費材生産에도 力點을 두기로 하여 先進工業國으로 부터 各種 工場設備을 輸入키로 한 事實에 비추어 北韓의 輸出貿易은 우선 量

的으로 보아 先進工業國家로 계속 偏重하게 될 것으로 豫想되며
 其他 地域에서는 特定 商品別로 韓國의 輸出品과 競合될 것이 豫
 想되는 데 그 對象으로서는 主로 農·水産物을 爲始하여 雜製品,
 鉍物類等이다. (表 3-5)

<表 3-5> 对自由陣營 南·北韓 輸出競合 地域

輸出對象地域	總輸出에 對한 占有比率(%)	
	韓 國	北 韓
日 本	21.42	55.80
홍 콩	3.9	6.76
西 獨	2.64	22.19
카 나 다	2.43	-
싱 가 폴	1.94	9.71
和 蘭	1.52	4.33
英 國	1.70	1.21

(가) 南·北韓對日 輸出構造 및 競爭關係

南·北韓의 對日輸出貿易은 1971年 韓國이 2億6千萬弗인데
 比하여 北韓은 韓國에 比하여 不過 11.2%에 해당하는 2千9百
 20萬弗相當을 日本에 輸出하여 量的인 面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南·北韓의 對日單獨輸出品을 除外한 輸出競合商品에 限定하여 比
 較하여 본다면 韓國의 競合商品 輸出額 9千4百80萬弗 (對日總輸

出額의 36.4%)에 비해北韓의 競合商品輸出은 2千4百18万弗 (對日總輸出額의 82.6%)로써 韓國의 競合商品 輸出額의 26.5%에 該當하여 적지 않은 競合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對日輸出의 36.4%만이北韓과의 競合關係에 있고 나머지 63.6%는 韓國의 單獨輸出商品으로써 安定圈에 있는데 反하여北韓의 對日輸出의 경우는 82.6%가 韓國과 競合되고 나머지 不過 17.4%만이 單獨輸出品에 屬하고 있어 對日輸出에 있어 아직까지는 韓國이 월등히 우세한 位置에 있다.

韓國의 對日單獨輸出의 合計는 約 1億6千5百萬弗로써 섬유제품 참치 및 冷凍魚介類, 電氣機器 輕工業製品을 爲始하여 苧蓆, 木材 및 琺瑯製品, 石油類, 合成樹脂等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이에 反하여北韓은 對日單獨輸出合計가 510万弗로서 對日總輸出에 17.4%를 占有하고 있으며 品目도 農, 水産物 4個種, 마그네샤 크링커 海綿鐵鋼, 鐵鋼의 「빌레트」 등에 지나지 않는다.

쌍방의 單獨輸出品以外에 南·北間에 對日輸出 競合關係를 볼것 같으면, 韓國의 對日輸出의 36.4%에 해당하는 9千4百86万弗이北韓의 對日輸出의 82.6%에 해당하는 2千4百18万弗과 金額上으로는 競合되고 있으나 具體적인 商品別로는 몇몇商品을 除外한다면 競合關係에 있다가 보다 현격한 우열에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韓國의 對日輸出競合商品을北韓의 輸出과 對應시켜 優勢品目과 劣勢品目으로 分類하여 檢討하여 볼때 韓國의 優勢品目は 競合總額에 99%에 해당하는 9千3百40万弗(16個 品目) 相當에

이르고 있으며 劣勢品目は 不過 1%인 92万弗 (8個 品目)에 지나지 않는 反面 역으로 北韓側 優勢 8個 品目の 輸出額은 北韓競合 總額에 不過 32.9%에 해당하는 795万弗에 지나지 않고 北韓側 劣勢 16個 品目이 찾이하는 比率은 67.1%로써 1千6百23万弗에 해당하는 競合商品이 劣勢에 놓여 있다. (表 3-6)

<表 3-6> 南·北韓 对日輸出 競合關係 (1971年)

(單位：1,000弗)

品 目	韓 国 (A)	北 韓 (B)	競 合 比 (B/A)
輸 出 總 額	260,617 (100%)	29,286 (100%)	11.2
競 合 總 額	94,862 (36.4%)	24,184 (82.6%)	26.5
魚 介 類	26,976	793	6.9
성 계 것	1,876	250.4	13.2
새 우	313	131.9	42.1
오 징 어	9,171	116.3	1.3
果実및야채 (해태제외)	1,500	38.4	2.6
綿 (主로 生糸)	42,480	7,046.6	16.6
鐵 鉍	5,155	4,824	93.6
亜 鉛 鉍	3,395	259	7.6
土, 狀, 黑 鉛	632	387	61.4
石 英 및 硅 石	1,408	477.3	33.9

品目	韓国 (A)	北韓 (B)	競合比(B/A)
螢石	1,527	450	29.5
滑石	1,767	638	35.9
人蔘 및 紅蔘	4,215	121	2.9
無煙炭	4,730	1,156	24.4
陶磁器	105	15	14.9
바구니 細工品等	52	23	45.3
조개류 (대합)	674	1,127	167.2
우수수	47	719	1,531
짚 및 穀物 껍질	2.8	101.9	3,639
酒 (人蔘酒)	18	90.2	501
天然 동석	25.7	503	1,958
銑鐵	5.6	2,274	40,616
鉛塊	32	457.5	1,430
亜鉛塊	115	2,681	2,332

資料： 商工部，輸出統計，1972.1

韓國貿易協會，「貿易統計年報」 1971

라. 共産圈의 輸出市場 潛在性

本章에서는 國際市場에서의 南·北韓의 競争과 協力方案을 模索하기 爲한 수단으로써 最近의 東·西貿易의 擴大趨勢를 爲始하여 自由陣營全般에 걸쳐 北韓과의 輸出競合構造의 比較와 特히 近年에 와서 北韓의 輸出이 急激히 增大하고 있는 日本市場에서 南·北韓의 輸出競合構造의 比較를 中心으로 分析을 始圖하였거니와 이 제껏 韓國의 輸出對象이 되어 갔던 自由陣營에서의 南·北韓輸出貿易의 競合構造의 比較檢討에 이어 여기에서는 現在 北韓의 總輸出의 約 70%以上을 차지하고 또 장차 韓國과의 交易의 關係가 이루어질 것이 豫想되는 蘇聯을 中心한 東歐共産圈諸國의 輸出市場 潛在性에 關한 分析을 始圖코져 한다.

따라서 前述한 蘇聯을 包含한 7個의 東歐諸國의 市場規模 經濟成長과 輸入動向 및 이를 市場의 相對的 重要性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들 7個國市場이 지난 1968년에 있어서 世界貿易의 11%의 차지 하고 있으며 世界産業生産의 30%以上을 차지 하였다. 또한 이들은 地球表面積의 1/6 이상을 占하고 있고 人口의 10%를 占하고 있다. 7個國 市場中 6個市場은 人口 및 面積에 있어 가장 큰 蘇聯과 比較할 때 매우 작다.

後者は 面積에 있어 6個의 他東歐諸國家를 合친 것 보다 約 20倍以上이 크다.

1968年度에 있어 이들 7個國의 輸出은 約 251億弗이 있으며

輸入은 約 239 億弗에 達하고 있다. 蘇聯은 혼자서 兩者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 即 蘇聯의 輸出은 約 106 億弗이 있으며, 輸入은 同年에 約 94 億弗을 이루고 있으며, 여타의 6 個國家의 輸出은 約 145 億弗에 達하고 있으며 輸入은 約 144 億弗이다. (表 3 - 7)

以上の 資料를 본다면 蘇聯의 넓은 領土와 많은 人口가 同地域에 對한 輸出增加에 集中的인 傾住를 正當化 한다고 生覺해서는 아니 된다. 6 個市場中 5 個市場은 外國貿易에 보다 크게 依存하고 있으며 廣範圍한 制度的인 助成策이 貿易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開發되어 왔으므로 이들 市場은 外國貿易業者들에게 同等한 關心의 對象이 된다.

더욱이 보다 작은 6 個國市場이 總體的으로 蘇聯보다 約 50 % 以上이나 더 많이 輸入을 하고 있고 西方諸國이나 開發途上과의 能動的인 擴大를 追求하고 있다는 事實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群小 6 個國家中 「폴란드」가 가장 큰 面積과 人口를 갖고 있는 바 이는 次順位國인 「루마니아」보다 人口,面積 兩面에서 約 1/3 더 크다. (表 3 - 8)

東獨은 다음으로 人口가 많으며 「체코스로바키아」보다 約 500万이 더 많으나 面積에 있어서는 約 20 % 적다.

또한가지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事實은 以上 7 個國 市場間에 있어서 經濟開發의 相對的 水準은 커다란 差異를 反映해 주고 있는 것이다.

「루마니아」는 7個國中 1人當 GNP水準이 가장 낮으며 東獨은 가장 높다.

이들 數値는 個個 7個國의 製造業이 GNP中에서 占하는 比率에 比例하고 있다.

即 「루마니아」는 GDP의 49%가 製造業에서 生기나 「체코」의 數値는 64%이다.

7開國의 工業化 水準의 多樣한 差異는 各國의 平均成長率에서 反映해 주고 있다. 一般的으로 産業發展의 水準이 낮을 수록 그 國家의 成長率은 높다.

그리하여 1950年 - 1967年의 期間中 「불가리아」의 年間成長率은 8%에 達하였으나 「체코」의 그것은 5.2%였다. (表 3-9)

7個國의 計劃當局은 1970年代에 있어서도 1950年代 以來로 記錄된 成長率과 대체로 같은 成長率을 유지할 것을 期待하고 있다.

이들 計劃成長率은 人口增加計劃을 고려하여 調整할 때에도 1970-1980年 期間中에 1人當 GNP의 上昇은 대체로 지난 20年 期

注(1) Economic Surey of Europe에 따르면 純實物生産 (Net Material Product) 用語는 東歐計劃經濟諸國에서 使用되는 概念으로써 公式的 報告數字上 감가상각과 非實物的 3次産業 (Service)를 包含하지 아니한다.

(2) GDP (Gross Domestic Product)는 市場價格으로 評價된 財化 및 用役의 生産額에 해당하여 「國內總要素所得+間接稅-補助金」과 一致한다. 따라서 GDP는 海外로부터의 純財產所得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表 3 - 7> 蘇聯 및 東歐諸國의 市場規模 (1)

区 別	GDP上의 製造業比率 (1966年)	1人当 GDP (1965年)	1人当 貿易量 (1965年) \$貨	總輸入額 (1968) FOB 100万弗	CMEA로부터의 輸 入 (1968年) FOB 100万弗	總輸入中 CMEA로부터 의 輸入 比 率
	(1970年)	Lera(1970)	(1971年)	(1970年)	(1970年)	
불 가 리 아	65	3,035	450	1,815	1,383	76.2
체 코	64	1,340	376	3,077	2,077	67.5
東 独	74	1,348	345	3,396	2,429	71.5
항 가 리	56	870	298	1,802	1,187	66
폴 랜 드	52	870	144	2,853	1,745	61
루 마 니 아	49	627	114	1,609	739	46
蘇 聯	50	969	70	9,410	5,645	60

資料： UNCTAD,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of the Socialist Countries

間과 같은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期待된다.

外國貿易에 있어서 7個國 各國의 比率과 成長은 工業化의 相對的 水準 및 1人當 GDP에 對應하고 있다. 이리하여 「불가리아」의 1人當 外國貿易去來額은 1965年의 249弗에 達하였으나 「체코」의 그것은 376弗이 었다.

단지 蘇聯의 外國貿易만이 이같은 形態를 이탈하고 있다. 이같은 事實은 보다 높은 自給度를 可能케 하는 蘇聯經濟의 資源賦存量 및 規模에 依하여 說明된다.

大部分의 工業化 過程에 있는 經濟와 같이 東歐諸國은 西歐 및 北歐經濟와 比較할 때 相對적으로 높은 成長率을 保持하고 있다.

이같은 높은 成長率은 外國貿易에도 反映되고 있으나 다만 1965年以來 計劃目標의 大幅的인 年次的 調整結果로 말미암아 輸出入의 增大는 每年 變化의 起伏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10年동안 社會主義國家가 世界貿易上 찾이하는 比重은 다소 下落하였는데 1960年代의 11.7%로 부터 1968年의 10.7%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 國家의 總值的인 貿易量은 같은 期間中 1960年의 150億弗로 부터 1968年의 253.8億弗로 상당히 增加하였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보다 重要한 事實은 이들의 東歐社會主義國과의 貿易이 1960 - 68年 期間中 年平均 13.2%의 成長率로 相

當 한 增加를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1966年以來 東歐의 輸入 및 輸出增加率は 國際平均과 一致하거나 上廻하는 傾向에 있다.

그러므로 지난 20年間の 經驗 및 本來의 趨勢를 開發途上國에 對한 東歐의 市場潛在力의 指標로 挾한다면 總體的인 展望은 異例的으로 밝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이 東歐의 그들 貿易 相對國側의 輸入의 接續的 增加에 對한 長期的인 準備態勢를 確實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取할 때 대체로 이같은 樂觀論은 保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貿易關係를 擴大하려는 相互間에 意慾에서 結果되는 雙務貿易支払 協定은 開發途上國이 東歐相對國으로 부터 商品輸入을 增大시킬 조치를 取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一般的으로 産業資本設備 및 消費材의 購買를 意味한다.

지난 20年間に 蓄積된 充分한 經驗에 비추어 불매 制度的인 조치에 依한 東歐 및 開發途上國間의 貿易擴大를 支援할 수 있다는 結果論이 許容될 수 있다.

<表 3 - 8> 蘇聯 및 東歐諸國의 市場規模 (II)

國 別	人 口		面 積 (<i>km²</i>)	國民總生産 (G N P)		國民所得增加率 (1963 - 1968)
	人口數 (100萬)	1975年 추정 (100萬)		(1968) (10億弗)	1963 - 1968 增加率 (不變價格)	
불 가 리 아	8.5 (1970)	8.9	110,911	(10億Lera) 1970	(1965-70)	(1965 - 70)
체 코	14.4 (1969)	15.0	127,870	25.80	61.2	52
체코社會主義공화국	9.9		78,861	22.70		35.5
스 로 박 獨	4.5		49,009			
東	16.1 (1968)	17.1	108,300	32.90	26.5	23.3
항 가 리 드	10.3 (1968)	10.5	93,030	13.70	24.5	31.2
폴 랜 드	32.6 (1969)	34.3	312,677	39.20	35.6	42.2
루 마 니 아	19.9 (1968)	21.3	237,500	19.80	48.9	-
蘇 聯	242.0 (1970)	260.8	22,400,000	396.00	20.0	36.4

資料: U . N :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Provisional Report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as assessed in 1963"
 "Year Book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表3-9〉 東欧諸国の N M P, G D P 및 人口의 平均增加率

国 別	N M P (I)			G D P (2)		人 口		1 人 当 G N P	
	1950- 1967	1970- 1980	1965- 1980	1970- 1980	1965- 1980	1970- 1980	1965- 1980	1970- 1980	1965- 1980
불가리아	8.0	8.0	8.1	7.7	7.8	0.7	0.7	7.0	7.1
체코	5.2	5.3	5.9	5.0	5.6	0.6	0.6	4.4	5.0
東 独	6.1	5.3	5.2	5.0	4.9	0.2	0.2	4.8	5.7
항가리드	5.8	5.7	5.9	5.4	5.6	0.4	0.3	5.0	5.2
폴란드	6.7	6.3	6.2	6.0	5.9	1.1	1.0	4.9	5.9
루마니아	8.3	8.1	8.0	7.8	7.7	0.9	0.8	6.9	6.8
蘇聯除外東欧平均	-	6.2	6.3	5.9	6.0	0.7	0.7	5.3	5.3
蘇 聯	8.2	7.1	6.9	6.8	6.6	1.0	1.0	5.8	5.5
蘇聯包含東欧平均	-	7.0	6.7	6.7	6.4	0.9	0.9	5.7	5.5

第 4 章 協力の 問題点 및 長期對策

가. 南. 北韓協力에 따른 損益評價

本 研究는 이제껏 國際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競爭 및 經濟的 協力方案을 模索하기 爲하여 第 2 章에 서는 北韓의 貿易政策을 爲 始하여 對共產圈貿易과 對自由陣營 對日本貿易의 現況을 檢討하였고 第 3 章에 서는 自由陣營과 對日本市場에서 南. 北韓 輸出貿易의 構造的 分析과 競爭關係의 比重을 檢討한 바 있다.

왜냐하면 北韓은 全体貿易의 70% 以上을 共產圈 貿易에 依存 하고 있으며 나머지 約 20%를 自由陣營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韓國은 아직도 共產圈과의 貿易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 고 있기 때문에 蘇聯을 爲始한 東歐諸國과의 貿易을 如何히 擴大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1980年代에 100億弗 輸出이 라는 当面 目標의 實現과 더 나아가 輸出立國의 遠대한 目標을 窮極적으로 實現함에 直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共產諸國과의 政治 外交 關係 改善에 있어서도 先導的 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기 때문에 近来 國家的인 關心事로 論議되고 있다.

國際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經濟的 協力を 하기 爲하여 가장 큰 難題는 우리에게 있어서 自由陣營과 日本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競爭을 如何한 方法으로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問題인데 지난

1969年 現在 北韓과의 輸出競合構造를 본다면 韓國의 同地域總輸出 6億2千萬弗 가운데 北韓과의 競合比率은 8.8%로써 우선 數量的으로 본 競合關係는 크다고 볼 수 없다. 韓國側의 有利한 商品에 對해 서는 北韓側의 輸出이 적기 때문이다.

산動物 食料 煙草等이 競合比 6.6%이고 北韓의 商品과 10% 以上の 競合率을 보인 商品은 穀物 煙草等 主로 1次產品이다.

또한 南·北韓共히 가장 主要한 輸出市場인 日本에 서의 競合關係를 본다면 우선 對日輸出貿易은 1971年 韓國이 2億6千萬弗인 데 比하여 北韓은 11%에 해당하는 2千9百萬弗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에서 雙方의 對日軍獨輸出商品을 除外한 輸出競合商品에 限定하여 比較하여 본다면 韓國의 競合商品輸出額 9千4百80萬弗 (對日總輸出額의 36.4%)에 比하여 北韓의 競合商品比率은 2千4百18萬弗 (對日總輸出額의 82.6%)에 達하고 있어 結局 韓國의 對日輸出에 있어 서는 全體의 36.4%만이 北韓과의 競合關係에 있고 나머지 63.6%는 韓國과의 單獨輸出商品으로 安定圈에 있는데 反하여 北韓의 對日輸出의 경우는 82.6%가 韓國과 競合되고 나머지 不過 17.4%만이 單獨輸出品에 屬하고 있어 아직까 지 는 安定圈에 있다.

또한 競合品目에 있어 서도 主로 農·水産物을 爲始한 一部 輕工業製品等이다.

그럼으로 장차에 있어 80年度의 100億弗 輸出을 達成하기 爲하여 서는 重化學工業製品을 爲始한 輸出構造의 質的인 高度化가 要請됨은 勿論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現在 北韓은 60年代에 걸친 經濟的
침체와 70年代에 있어 經濟發展을 爲한 資本의 不足現象과 外部
로부터의 孤立으로 因한 技術의 貧困은 政策의 劃期的 轉換이
일어 나지 않는限 今後에 있어서도 輸出額의 急増과 輸出構造의
質的인 高度化는 가까운 時日안 에는 일어날 展望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共產圈市場의 潛在性을 본다면 蘇聯을 爲始한 東歐
諸國 6個國의 貿易額은 지난 1968년에 世界貿易量 에 11%를
찾아 하고 있으며 世界産業生産의 30%以上을 찾아 하고 있다.

1968年度에 있어 이들 7個國의 輸出은 約 251億弗 輸入은 約
239億弗에 達하고 있어 量的인 面에 있어서의 潛在性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60年代에 걸친 東·西貿易의 增大는 이들 東歐諸國들로
하여금 漸次 蘇聯 Bloc을 이탈하여 貿易을 促進하기 爲한 廣範圍
한 制度的 助成策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國民經濟에 있어 外國貿易
의 依存度가 增大되고 있는 現實이다.

大部分의 工業化 過程에 있는 經濟와 같이 이들 東歐諸國은 西
歐 및 北歐經濟와 比較할때 相對的으로 높은 成長率을 保持하고
있으며 이같은 높은 成長率은 自然 外國貿易에도 反映되고 있다.

또한 이들 東歐諸國의 世界貿易의 比重 11%는 계속하여 增大
되어 가고 있으며 總體的인 貿易量은 1960年度の 150億弗로 부
터 1968年の 253.8億弗로 相當히 增大되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보다 主要한 事實은 이들의 東歐社

會主義國家와의 貿易이 1960 - 68年 期間中 年平均 13.2%의 成長率로 相當한 增加를 이룩하였 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난 1966年以來 東歐의 輸入 및 輸出增加率은 國際平均과 一致하거나 上廻하는 傾向에 있다.

그럼으로 지난 20年間の 趨勢 및 經驗을 韓國에 對한 東歐의 市場潛在力의 指標로 挾한 다면 總體的인 展望은 異例的으로 밝다.

以上 自由陣營에 서 特히 日本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輸出競合構造의 比較와 또한 韓國이 이제껏 進出하지 못한 蘇聯을 為始한 東歐諸國의 市場潛在性을 比較하여 볼때 南·北韓의 商品의 共同展示場이나 共販場의 設置 其他國際市場에 對한 北韓과의 協力關係에 對한 共同活動은 韓國에 있어 利得이 있다는 事實이 分明하다.

나. 南·北韓 協力の 範圍

北韓과의 國際市場에 있어 서의 協力方案은 經濟的인 側面에서 여러가지 가 있을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南·北韓商品의 共同展示場이나 共販場의 設置 더 나아 가서는 共同決濟나 窓口의 一元化 販買의 代行役割等이 있을 수 있다.

다만 南·北關係가 向後 어느정도 發展해 나아 가느냐 정도의 따라 協力方案도 進前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一次的으로 國際市場에서의 南·北韓協力方案이라 함은 商品의 共販場設置가 所望스럽다.

現在 北韓은 蘇聯 및 東歐諸國 以外에도 일본 香港 西獨等地에

通商代表團이 상주하고 있는데 自由陣營에서 北韓과의 競合地域인 「카나다」나 「싱가폴」 其他 和蘭이나 英國等地에 南·北韓商品의 共販場設置를 韓國이 알선 함은 勿論이고 「파나마」 「브라질」 등의 中南美地域을 為始하여 韓國이 이제껏 進出하지 못한 蘇聯과 中共 東獨 「폴란드」에 南·北韓商品의 共販場을 設置하는 것이다.

現在 東獨이나 「체코」 등의 東歐諸國의 例를 들면 「印度」나 「파키스탄」으로 부터 많은 纖維製品을 輸入하고 있으나 品質이 優秀한 韓國의 製品은 政治的인 명분에 依하여 忌避하고 있는 現象이다.

따라서 장차 韓國은 美國을 為始한 主要 自由陣營에 北韓의 商品을 소개하기 為한 共販場을 設置하여 北韓의 商品을 紹介하고 그 對價로써 蘇聯과 東歐에 韓國商品이 紹介된다면 國際市場에 서의 北韓과의 競爭은 韓國이 월등 優勢한 位置에 서게 됨은 分명한 事實이다.

그러나 東·西兩世界에서 南·北韓의 公開競爭은 社會主義 國營貿易策을 답습해 왔으며 더욱이 經濟發展 過程에서 國際分業을 拒否하고 商品交易을 오직 特定の 國家的 目的을 達成하기 為해서 最少限으로 抑制 하여 온 北韓이 價格과 國際競爭을 為主로 한 自由主義 經濟原則을 固守하고 있는 韓國과의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共同協助에 應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經濟的인 目標보다 政治的인 目標가 더욱 큰 比重을 形成할 것이다.

自由主義 經濟社會에 있어서 國際間 分業形成의 要因은 價格의 差異에 基因한다. 1970年度의 資料를 基準으로 하면 韓國이 交

易關係를 形成하고 있는 國家의 數는 約 104 個國에 이르고 있고, 同年의 北韓의 相對國은 約 67 個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資料를 基準으로 하여 본다면 北韓도 이미 共產圈諸國을 爲始하여 大部分의 自由圈 主要諸國에 進出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北韓의 商品輸出額이 韓國에 比하여 월등이 적다는 事實은 北韓의 經濟的發展過程이 自由主義經濟諸國과 判이 하게 다르고 政策의 目標역시 價格機能에 依한 國際分業을 拒否하는 性格을 띠우고 있기 때문에 農·水産物을 爲始한 鉍産物 持定分野에 있어 一部 機械類에 限定된 製品을 輸出할수 밖에 없는 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北韓이 韓國과 같이 輸出商品의 質과 量이 多樣化되었 다면 自由陣營에 서의 交易의 對象을 擴大하는 것은 곳이 韓國의 協力없이도 이루어 질수있는 일이 라고 보아 진다.

그럼으로 共產圈諸國을 침투하기 爲한 北韓과의 國際市場에 서의 協力問題는 장차 南·北關係가 더욱 進前을 거듭하기 以前에는 現實的으로 힘든 일이라 生覺할수 있다.

다. 協力方案 및 長期對策

本章에 서는 이제껏 南·北韓經濟協力에 따른 問題點과 또한 이에 對한 可能性問題를 檢討하였 거니와 國際市場에서 北韓과의 協力이란 現在와 같은 南·北關係下에 서는 一次的으로 商品의 共同展示場設置가 可能하리라 본다.

따라서 自由障營의 特定地域과 이에 比例하는 수자의 共產圈諸國에서 商品의 展示場을 共同으로 開催하는 것이다.

지난 1971年度 政府는 海外市場의 積極的인 開拓과 우리나라 商品에 對한 認識을 올바르게 하기 爲하여 이미 海外 各處에서 商品展示會를 開催하여 成果를 올린바 있다. (表 4 - 1)

即 展示會開催 現況을 보면 歐州地域 美州地域 亞州地域等 廣範 圍하게 2次에 걸쳐 進行한 바 있다.

따라서 主要諸國에서 北韓과의 商品展示를 共同으로 開催하기 爲하여 서는 歐州 및 美州의 主要都市에서 韓國의 主導下에 展示場을 開催함과 同時에 蘇聯 및 東歐의 主要國에 서는 北韓의 主導下에 展示場을 開催하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商品의 展示會開催와 더불어 새로운 需要의 開拓과 販路를 主導國에서 各各 알선해 주는 協定이 必要하다.

勿論 지난 1960年代부터 急激히 伸張한 韓國의 輸出貿易은 1972年度에 17億5千萬弗에 이르고 있으며 1973年度 輸出目標가 約24億弗에 達함으로써 輸出市場의 多變化와 品目의 多變化가 이루어 지고 있음으로 北韓에 比하여 優勢한 位置에 있는 것이 事實이며 外部指向的 輸出立國을 目標로 하여 80年度에 100億弗 輸出을 爲하여 現在 政府는 輸出構造의 高度化 重化學工業 爲主의 輸出構造로 轉換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 지만 韓國의 輸出 産業基盤을 擴充하기 爲하여 서는 첫째 輸出振興을 爲한 重點對象 品目으로 重化學工業 및 先進國의 特惠關稅 對象品目의 關聯이 더욱 增大되어 야 할 것이다.

<表 4 - 1>

展 示 会 開 催 日 字

(1971年)

開催日時	場 所	展 示 会 名
4.23 - 27	후랑크 홀트	欧州地域 1次品目別展示会
5.3 - 6	비 엔 나	"
5.17 - 20	미 나 로	欧州地域 2次品目別展示会
5.26 - 6.2	바 里	"
6.7 - 6.9	런 던	"
6.16 - 22	스 특 호 림	"
6.28 - 7.1	암 스 텔 당	"
5.3 - 6	뱅 쿠 버	美州地域 1次品目別展示会
5.12 - 15	몬 트 리 올	"
5.25 - 28	달 라 스	"
6.3 - 7	센푸란시스코	"
10.5 - 7	뉴 욕	美州地域 2次品目別展示会
10.12 - 15	시 카 고	"
10.19 - 22	로스엔젤스	"
5.20 - 24	방 콕	亞州 1次品目展示会
5.13 - 6.3	싱 가 폴	"
6.9 - 12	자 칼 타	"
6.21 - 24	시 드 니	"
6.28 - 7.2	홍 콩	"
10.4 - 7	東 京	亞州 2次品目展示会
10.11 - 14	오 사 까	"

資料：商工部

即 電子製品 鐵鋼材 船舶 재봉기 自轉車 肥料 세멘트 合成樹脂
製品 타이어 및 튜브 고무製品 신발류 도자기 및 타일類 絹織物
旅服類 玩具類 旅行用具 皮革製品等の 重点的 開發이 時急하다.

둘째 合作投資의 積極 誘致를 爲해 關係法規 및 認可基準을 改
正하고 合作投資의 節次를 더욱 간소화 하여 外國人의 投資環境을
整備할 것이며 美國 日本 西獨等과 投資誘致交渉을 強化하기 爲하
여 投資誘致交渉團을 파견해야 할것이다.

國際競爭을 爲한 韓國에 있어 서의 이같은 合作會社의 設立은
北韓에 比하여 커다란 利點이 되기 때문이다.

세째 未開拓地域인 共產圈諸國의 市場을 開拓하기 爲하여 서는
東歐市場進出을 爲한 特別한 「마아케팅」戰略의 開發도 時急하지
만 「雙務貿易支払協定」이 수반되어 야 한다.

貿易關係를 擴大하려는 相互間의 意慾에서 이같은 雙務貿易支払協
定은 東歐諸國이 一般的으로 追求하는 공통된 現象이다.